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35호 1판 (음력 4월 11일) 2014년 5월 9일 금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새정치 전남지사 경선 D-1

배심원단의 선택에 전남 미래가 달렸다

‘초박빙’ 여론조사 어제 끝나
공론조사 투표와 합산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가 10일 결정된다. 이날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공론조사 배심원단 투표와 지난 7~8일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후보와 주승용 후보가 초박빙의 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지난달 14일 실시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후보 33.7%, 주승용 후보 32.4% 등 1.4% 차이의 초박빙 경쟁 구도를 보였다. 이후 실시된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주승용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공론조사 배심원단 투표가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어느 후보가 지지 배심원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토론회도 변수다. 설득력 있는 토론과 비전 제시로 중립 성향의 배심원단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 20~30명의 배심원이 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초박빙의 상황에서 중립 성향 배심원의 표심 향배는 경선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전남지사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초박빙의 판세라는 점에서 배심원 2~3명 지지 차이에 따라 경선의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지 배심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지방선거 중 보기 드문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배심원단에도 현명한 검증과 판단의 책임이 지워지게 됐다. 전남의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선택이 전남의 향후 4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배심원단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당비대납 의혹 등을 둘러싼 진흙탕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정책 이슈가 실종된 만큼 배심원들에게도 심사숙고의 자세가 요구된다.

전남도민들은 배심원단이 ‘전남의 미래가 내 손에서 결정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투표 참석에 앞서 세 후보들이 제시한 각종 정책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학연·지연·혈연을 떠나 냉철하게 전남의 발전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10일 열리는 배심원단 투표 결과에 따라 전남지사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며 “전남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점에서 배심원들은 보다 냉철하게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올해 공무원들 평균 월급 447만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이 44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작년에 435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450만원에 육박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394만원 수준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복지포인트 등은 빠진 금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고싶다 친구들아” 세월호 침몰 사고 23일째인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여고생들이 ‘친구야 미안해’라는 문구 등이 적힌 노란색 피켓과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훈처는 5·18이 싫은가 무서운가

국민 60%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성하는데
5월 유가족들 기념식 불참 선언에도 “제창 않겠다” 버텨

5월 관련단체 등이 최근 5·18 민중항쟁 제34주년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관례에 따라 합창단 공연 방식으로 5·18 기념식순에 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보훈처는 5·18 기념식 파행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국민대통합을 위한 결단 없이 ‘정부 관례’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훈처는 8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관련,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 공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주관으로 하다 보면, 근거에 따라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의전편람을 보면 정부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를 땐 합창단 공연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기념식엔 6·10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5월 관련단체 등의 5·18 기념식 불참과 관련해선 “5·18 기념식이 최대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간이 여유 있는 만큼 (5월 관련단체 등과) 원만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보훈처는 1억2000만 원의 예산 반납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보훈처는 5·18 기념식 경과보고와 관련해선 “(지난 33주년 기념식 땐) 광주지방보훈청장이 경과보고를 했다”며 “5월 관련단체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광주지방보훈청장이 했다”며 “올해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5월 관련단체의 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정 조율이 안 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5월 관련단체 등은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국민화합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35명 사망 269명
※ 세월호 참사 23일째
8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6면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 단일화 16일이 고비

이용섭 “빠를수록 좋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단일화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용섭 의원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후보 단일화는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 시장과의 후보 단일화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 후보의 선거캠프가 견고해질 수록 단일화가 쉽지 않아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과 이 의원의 단일화 작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5일과 16일 사이 이 의원이 후보에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법(53조4항)·국회법(136조)에 따라 당연 퇴직된다는 점에서 정식 후보 등록 이전 두 후보의 ‘정치적 결단’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5월30일과 31일부터 사실상 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단일화 시기는 빨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는 상대방이 있고 한 사람으로선 한계가 있는 만큼 잘 협의해 가겠다”면서 “단일화 방법과 시기는 실효성과 명분이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통크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